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개인기부자를 중심으로-

서영숙*·진관훈**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제주도내 기부경험이 있는 정기기부자와 비정기기부자를 대상으로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기부지속성 유지 및 기부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타 지역에 비해 개인기부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문화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기부경험자(n=530명)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의 문화성향, 기부지속성의 인식수준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는 기부 특성에 따른 문화성향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수평적 개인주의의 경우,

* 주저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 공동저자,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정기적 기부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수직적 집단주의의 경우, 월평균 기부액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7만 원 이상 기부자가 7만원 미만 기부자에 비해 기부지속성,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모두 높게 나타났다.

셋째,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집단주의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일수록 기부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주의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일수록 기부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주의 성향일수록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문화성향, 기부지속성,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개인기부자.

Ⅰ. 서론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개인기부자의 분포가 월등히 높다. 지난 3년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성과를 보면, 기부액은 2012년 49억 7백만 원에 비해 2014년 67억 5천5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기준 개인기부자는 전체 기부의 48.7%에 이르고 있다[1].

이처럼 제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개인기부자의 분포가 높은 이유는 제주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성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제주지역은 예로부터 상부상조와 수눌음 정신으로 제주지역 내 도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생활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제주지역민의 독특한 문화성향 및 기질이 제주지역이 타 지역과 달리 개인기부자가 많은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기부와 같은 윤리적 의사결정은 개인중심 성향이나 집단중심 성향과 같은 개인의 문화성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성향에 대한 연구는 Hofestede(1980)의 66개 국가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Triandis(1990)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발전되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구분은 기본적 사회 단위에

1) 부록 참조.

대한 견해 차이에서 출발한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며, 사회는 이러한 개별적 개체들의 복수적인 집합에 불과하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및 개성이 강조되고 개별적인 독특성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며 안락한 생활, 경쟁심, 사회적 성취 등의 행동 특징이 나타난다.[2)]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를 개인 간의 관계 혹은 집단으로 보며,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집단 내에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한다. 또한 관계 중심적 인간관을 주축으로 세계를 이해하며 인간을 상황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성향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은 문화권이 다른 사회에서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동일 문화권 내에서 개인마다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기부'는 사회적·정책적 장려에 힘입어 의미 있는 문화로 구축되고 있다. 기부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안정과 결속을 위한 중요한 기제이다.

기부지속성이 확대되면 지역의 사회문제 발생 시 개인과 단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원활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지역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공공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민간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부지속성 유지 및 확대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문화성향에 관한 연구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지지 등 심리학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 기부와 연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기부와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이 기부행위 및 기부만족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단위의 문화성향과 기부지속성의 구체적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의 개인 기부자 분포가 높은 원인을 '문화성향'을 활용하여 분석하려 한다. 특히 기부경험이 있는 제주지역

2) Triandis, H. C.,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1989, p. 506.

정기기부자와 비정기기부자를 대상으로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지속성 유지와 기부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성향의 개념과 특성

문화성향이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나타내는 가치관, 사회적 지지, 정서 등의 경향성을 의미한다[3]. 문화적 성향을 규정하는 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분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이분형 분류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의 개념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독립적 존재로 정의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 또는 중요한 사회조직에 동화되고 반영되며 상호의존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4].

비교문화연구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고 다른 변수와의 관계성을 살피는 개인적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 문화적 성향을 개인이 속한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국가 간 비교로, 같은 집단을 비교 하지 않더라도 문화적 특성과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의 다른 문화적 경향성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이론이 주로 집단적, 특히 국가 수준의 비교문화 연구뿐 아니라 한 국가 내의 분산을 파악하고 다른 변인과의 비교도 동시에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2차원적 접근은 문화를 세분화하

3) 정혜욱,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성향이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감수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2(3), 2012, 6쪽.

4) Markus, H. R., & Kitayama, S.,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1991, pp. 224-253.

5) 김정식, 「자기-타인 평가에서 자기해석과 종결욕구의 영향」, 『산업 및 조직』, 24(2), 한국심리학회지, 2011, 307-329쪽.

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Singelis외(1995)는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이분법적 문화 분류에 수평-수직의 차원을 도입하고 이를 확장시킨 4요인 개념을 제시하였다[6]. 그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7].

첫째 집단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개인주의적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개인으로 본다. 이러한 접근은 Markus와 Kitayama가 제시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아와 같은 맥락이다. 둘째 집단주의자들의 개인적 목표는 집단의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자들의 목표는 집단의 목표와 겹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만약 차이가 난다면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셋째 집단주의자들의 사회적 행동은 규칙과 의무, 책임에 의해 나타나며, 개인주의자들의 사회적 행동은 개인적 태도와 내적 과정(internal processes), 개인적 관계에 의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집단주의자들은 손해가 이익보다 크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개인주의자들은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합리적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기본적 특성 이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차원(수직적-수평적)을 추가한 네 가지의 문화적 성향은 아래와 같다[8].

①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개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내집단(in-group)의 한 양상(aspect)으로 여긴다. 자신의 자아를 구성원들 중 하나로 여기며, 내집단의 모두가 서로

6) Singh, Jagdip, Determinants of Consumers Decisions to Seek Third Party Redress: An Empirical Study of Dissatisfied Pati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Winter), 1989, pp. 329-363.

7)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Gelfand, M. J,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1995, pp. 240-275.

8) Triandis, H. C.,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1989, p. 506.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자아는 사회 의존적(interdependent)이며 타인과 같다고 생각하고 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②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개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내집단의 한 양상으로 여긴다. 내집단 구성원들 간에는 지위(status)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아는 상호 의존적이며 타인의 자아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편익(inequality)이 존재하며 각자를 서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내집단에 대한 봉사와 희생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③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자율적인 자아(autonomous self)가 존재하지만 지위에서는 타인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아는 독립적이고 타인의 자아와 동등하게 여겨진다.

④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자율적 자아가 존재하며 타인의 자아와는 다르고 편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아는 독립적이며 타인의 자아와 차이가 있고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2.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주의-집단주의는 문화 간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틀이다. Triandis(1995)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된다.

첫째 자기(self)의 특성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기'는 개별적인 개체로서 자율적이고 상호독립적인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둘째 목표설정의 우선순위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 목표와 집단 목표가 충돌할 때 개인 목표를 더 우선시하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집단 목표와 양립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만약 그것이 충돌하면 집단 목표를 우선시한다. 셋째 집단규범 및 개인 태도

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집단 규범보다는 개인 태도가 그들의 사회적 행동을 규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 규범을 더 중요시한다. 넷째 인간관계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간관계를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s)로 보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인간관계를 공공관계(communal relationships)로 보고 그 특정 관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9].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성'이 중심 가치이므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 개인 고유의 가치, 목표, 통제, 자기주장,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게 된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호 의존성' 내지 '상호 협조성'이 중심 가치이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내집단 관계에서의 상호 공감, 자기억제, 협동, 양보를 통해 집단구성원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구분에 더해 동일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사람들 간의 평등이나 경쟁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직성(vertical)-수평성(horizaontal)'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수직성은 상하관계에서 불평등을 수용하고 서열과 위계를 강조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수평성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의미한다[10]. 수직적 개인주의는 남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분으로 보고 집단구성원들 간에 상호의존적이지만 서로 다르다고 여기며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한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분으로 보지만 집단구성원들을 서로 평등하다고 여기고 공동체 목표를 강조하며 협동과 관계를 중요시한다[11].

---

9)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1997, p. 1245.

10)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D. P., &Gelfand, M. J, 상게논문.

11) Triandis, H. C., 상게논문

3. 기부의 개념 및 기능

기부란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물적·시간적 자원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복지의 목적과 자발성을 함께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2]. Payton(1983)은 개인 간에 일어나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 각자가 소액을 기부하여 각 개인들의 기부가 거대한 다수의 기부로 조직(기관)에 모아질 때 자선을 넘어 박애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사적 목표보다 공공의 목표와 비영리를 토대로 모금을 하는 비영리 조직은 통제 없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움직이므로 사적임을 강조한다.

비영리 영역의 모든 자발적/임의 기부 조직체, 예를 들면 교회, 학교, 민간 재단, 교육적, 종교적, 과학적 그리고 기타 공공의 선(public good)에 기여하는 비영리 활동들에 참여하는 조직체들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이 박애를 구현하는데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3].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신의 물질(현금, 물품) 또는 시간 및 노력(자원봉사, 재능봉사)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기부는 기부자의 참여형태에 따라 기관의 재정과 물적 자원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해주는 '물질적 기부', 시간을 내어 기관의 업무 보조 또는 지원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적 기부'로 분류한다.

기부동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부의도, 기부행동, 기부태도, 기부참여, 동기부여 등 기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14].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기부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기에 따를 분류로 자존욕구 기부자, 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부자, 질병공포에 의한 기부자, 습관적 기부자, 억지 기부자, 기부요청에 의한 기부자, 동정 기부자, 사해동포주의 기부자, 박애주의 기부자로 구

12) 박경수·김대원, 「초·중등 교사의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 『시민사회와 NGO』, 10(2), 2012, 221-246쪽.

13) Payton, R. L., Philanthropy as a right, www.paytonpapers.org, 1983.

14) 황창순·강철희,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Vo1.1 No.2, 2002,

분된다. 둘째, 참여정도에 의한 분류로 적극적 기부자, 소극적 기부자, 수동적 기부자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부자 집단은 각각 1/3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나이에 의한 분류로 초기연령 기부자(50세까지), 중간연령 기부자(50세에서 70세까지), 후기연령 기부자 (70세 이상)로 구분하고 있다[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는 기부자 분야별로 개인기부자, 기업기부자, 기부하는 형태에 따라 현금기부, 물품기부, 재능기부, 시간제기부, 자원봉사,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일반기부, 지정기부, 후원자의 결연유무에 따라 결연후원, 일반후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4. 기부지속성

지속성이란 '일정한 기간 성향이나 정해진 시기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연적이거나 일시적 충동에 의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도적 계획을 가지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16]. 기부 지속성은 일정 기간에 기부를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기적 기부, 기부지속성 또는 기부정기성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기부에 대한 지속성은 일정기간 동안 기부지속의향을 의미하며 정기적 기부, 기부지속성, 기부정기성, 기부충성도, 관계지속 의도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17].

기부와 관련한 지속성 연구는 주로 비영리조직의 입장에서 자원조달을 위한 모금을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Lwin(2002)은 이타주의적 가치와 지속적 기부에 대한 지식, 개인의 정신적 믿음이 클수록 지속적인 기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기부에 대한 의도가 강하다고 하였다. 기부와 관련하여 비영리조직이나

15) 박경수·김대원, 「초·중등 교사의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 『시민사회와 NGO』, 10(2), 2012, 221-246쪽.

16) 유용식·손호중,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8(2), 2009, 27-57쪽.

17) 류방,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기부동기가 기부만족과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신뢰,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단체에 대한 후원 지속 의도는 거래주체 공동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후원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성과가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 혹은 미래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내포하는 관계의 지속에 대한 후원자의 기대라 할 수 있다[18].

기부동일시는 조직동일시 및 관계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동일시는 조직신뢰 및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조직신뢰는 관계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비영리조직에서 마케팅 개념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잠재적 기부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속적 기부자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부행동은 기부의 필요성과 기부행동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에는 기부의도, 기부만족, 기부지속성 등의 변수로 측정하고 있다[19]. 이들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기부행동을 소비자 만족, 고객만족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개인들이 기부행동을 한 후, 만족을 경험한 정도에 따라 다시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구전행동을 함으로써 기부율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소비자를 통한 소비자의 효용증대와 마찬가지로 기부행동 역시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기부자들의 효용을 만족시키기 위해 실행된다는 것이다[20].

기부지속성 영향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소득, 종교활동, 고학력, 기혼인 사람들이 더 많은 기부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 및 행동요인에서는 타인에 대한 동정적 마음, 세금공제와 같은 이기적 동기, 자원봉사 경험 및 활동, 종교적 신념, 기관에 대한 신뢰, 개인의 사회문제 관심, 비영리조직의 적극적 모금활동 등이 기부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21].

---

18) Lwin, May O., J. D. Williams, and L. L. Lan, Social Marketing Initiatives : National Kidney Foundations Organ Donation Programs in Singapore, *Journal of Policy and Marketing*, 21(1), 2002, pp. 66-77.

19) 변충규, 「개인 기부자의 기부동기 및 의례화가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3(1), 2014, 59-85쪽.

20) 김정훈,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돈 태도 유형이 기부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2011, 819-829쪽.

21) 강철희·주명관, 「기부대상영역에의 기부참여행동과 기부정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6(2), 2007, 205-225쪽.

지속성은 충성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반복 구매와 타인의 추천 등 기업에 대한 신뢰도 구축과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충성도란 일정 시간에 걸쳐 여러 대안 중 한 가지 제품 또는 기업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높은 수준의 태도적 속성들과 연관된 행동이다. 충성도는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로 구분하는데, 행동적 충성도는 상품에 대한 재구매 의사 또는 재구매 비율이라 할 수 있고, 태도적 충성도는 상품에 대한 신뢰나 감정적 애착심 혹은 관여로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들 중 구매 행위를 한 후에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태도적 충성도가 더 중요하다.

비영리부문에서의 충성도는, 자선적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행동적 충성도를 보이며 대개 기부지속성, 정기적 기부, 부정기성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정기성이란 일정한 기간 성향이나 정해진 시기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부정기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간에 기부를 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정기적 기부 또는 기부정기성이란 의미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기부지속성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만족, 신뢰, 몰입 요인에 대한 영향력은 몰입, 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지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부와 관련된 확고하고 깊은 정도의 태도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기부 만족으로, 기부행위에 대해 소명이나 소신을 가진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만족이 낮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위한 희생을 포함한 이타성에 기인한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기부의 지속성 연구에서 기부의 지속성을 유발하는 경로는 첫째, 개인의 이질성에 의한 경로로 개인의 관찰되거나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의한 영향 둘째,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이란 과거의 기부경험이 미래의 기부경험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기부에 참여한 적이 있는 개인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습관적 기부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부참여에서 특히 상태의존성이 발생한다면 초기의 기부참여유도가 이후로도 꾸준한 기부참여로 이어져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22].

22) 한혜란, 「한국의 민간 기부금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기부의 지속성과 동료효과의

Ⅲ. 연구방법

1. 평가지표

1) 문화성향 평가영역 및 지표

본 연구는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표정민(2014)의 척도와, 장수지·김수영·Erika Kobayashi(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23] 하위 영역을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영역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직적 개인주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일을 못한다면 기분이 언짢다',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이웃과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을 즐긴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수평적 개인주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의 동료가 잘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만일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와준다', '경쟁은 삶의 원천이다',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낀다',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수직적 집단주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놀아야 한다', '경쟁 없이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기분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속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3) 장수지·김수영·Erika Kobayashi, 「연령집단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Vol, 28 No. 2, 2012.

집단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에게 의존한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수평적 집단주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달리 독립적인 인격체가 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친한 친구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수직적 개인주의 .601, 수평적 개인주의 .706, 수직적 집단주의 .620, 수평적 집단주의 .709로 나타났고, 문화성향 전체지표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866로 나타났다.

〈표 1〉 문화성향 평가지표

구분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이 나의 행복임. ·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함. ·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못한다면 기분 언짢음. · 내가 속한 집단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중요함 · 나는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함. · 나는 이웃과 사소한 것도 나누는 것을 즐김. · 격렬한 경쟁 상황에 참여하는 것을 즐김.	8	.601
	수평적 개인주의	· 나의 동료가 잘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함. · 나는 내 방식대로 삶 · 만일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 겪고 있으면 내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와줌. · 경쟁은 삶의 원칙임. · 만일 동료가 상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끼게 됨. ·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함. ·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임. ·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는 분발하게 됨.	8	.706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 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놀아야 함. ·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없음. ·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기분 좋음. · 어떤사람은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님. · 내가 속한 집단들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함. ·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 나에게 의존함.	8	.620

		·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 요구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함. ·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음.		
	수평적 집단주의	·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함. · 다른 사람과 달리 독립적인 인격체가 있는 것 나에게 중요함. · 내가 원하는 것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함. · 나는 내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이 중요함. ·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임. ·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함. · 나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함. ·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친한 친구의견과 자문을 구함.	8	.709

2) 기부지속성 평가영역 및 지표

본 논문은 기부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류방(2013), 김해숙(2008) 연구의 설문구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류방(2013)은 개인 기부자가 정기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여, 참여를 지속성으로 구성하였고, 김해숙(2008)은 지속적 기부행동의 선행과정인 지속적 관계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 동일시, 조직신뢰, 기부 동일시의 구성개념을 도출하였다[24]. 조사대상의 기부지속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 영역을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하위영역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부횟수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기부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자주 한다', '기부와 관련된 동아리나 모임에 대부분 참석한다', '기부에 대해 다음번 활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기부금액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앞으로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싶다', '나는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지역사회가 고액기부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기부지속의향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기부활동 참여를

24) 김해숙,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다',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기부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기부하는 기관에 충실한 기부자라고 표현하고 싶다', '나는 내가 기부하는 기관에 장기적 성공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기부추천의향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지속적인 기부를 권유할 의향이 있다', '나는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의 좋은 점을 타인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기부에 관한 조언 구한다면 이 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언할 것이다', '내가 기부하는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부횟수 .807, 기부금액 .689, 기부지속의향 .912, 기부추천의향 .940로 나타났고, 기부지속성 전체지표에 대한 Cronbach's α계수는 .942로 나타났다.

〈표 2〉 기부지속성 평가지표

구분		항목	문항수	Cronbach's α
기부지속성	기부횟수	· 정기적으로 기부 여부 · 내가 하는 기부에 대해 주위사람과 이야기 자주 함. · 기부와 관련한 동아리나 모임에 대부분 참석 · 기부에 대해 다음번 활동에 참여 의향	4	.807
	기부금액	· 앞으로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더 많은 금액을 기부 여부 · 나는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우리 지역사회가 고액기부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4	.689
	기부지속의향	· 지속적기부 및 기부활동 참여를 오랫동안 지속 의향이 있음. · 현재 기부하고 있는 기관에 기부잘했다고 생각함. · 기부하는 기관에 충실한 기부자라고 표현하고 싶음. · 내가 기부하는 기관에 장기적 성공에 관심 가짐.	4	.912
	기부추천의향	·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지속적인 기부를 권유할 의향이 있음 · 현재 기부하는 기관 좋은점 타인에게 이야기 할 것임. · 다른 사람이 기부에 관한 기부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면 이 기관을 극적으로 조언할 것임. · 내가 기부하는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임.	4	.940

본 논문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기

부와 관련된 요인이다. 개인적 특성 변인들은 연구자에 따라 문화성향,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거주지역, 직업, 종교, 월평균 총 가구소득의 7가지 변수를 사용하였고, 기부요인으로는 정기적 기부여부, 월평균 기부금액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속변수가 아닌 성별, 학력, 거주지역, 종교, 직업변수 등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논문은 조사대상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부경험이 있는 도민으로 한정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분포를 고려한 후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5년 11월6일부터 2015년 11월11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50부를 배포하였으며 540부(회수률 98.2%)를 수거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분만을 응답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한 10부를 제외한 530부가 최종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2) 분석방법

본 논문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성향 수준, 기부지속성 수준을 측정하고 연구대상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문화성향 4개 변수(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기부지속성의 4개 변수(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에서는

R2, 모형의 유의도, 회귀계수 등을 측정하여 문화성향의 변수들이 기부지속성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245명(46.2%), 여성 285명(53.8%)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이하 87명(16.4%), 30대 146명(27.6%), 40대 183명(34.6%), 50대 이상 113명(21.4%)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최종학력은 95.1%가 대졸이상으로 나타났고 고졸이하는 4.9%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의 경우 제주시 414명(78.1%), 서귀포시 116명(21.9%)로 나타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인구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직업은 전문직 75명(14.2%), 관리직 31명(5.9%), 사무직 379명(71.6%), 기타 44명(8.3%)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불교 151명(28.5%), 기독교 46명(8.7%), 천주교 71명(13.4%), 무교 262명(49.4%)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87명(16.4%), 200-300만원 미만 101명(19.1%), 300-400만원 미만 115명(21.7%), 400-500만원 미만 104명(19.6%), 500-600만원 미만 64명(12.1%), 600만원 이상 59명(11.1%)으로 나타났다.

기부요인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 405명(76.4%), 정기적으로 기부하지 않고 있다 125명(23.6%)로 나타났고, 월평균 기부금액은 1-3만원 기부자가 175명(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7만원 이상 86명(21.1%), 3-5만원 79명(19.4%), 5-7만원 41명(10.0%), 1만원 미만 27명(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인구 사회적 요인	성별 (n=530)	남	245	46.2
		여	285	53.8
	연령 (n=529)	20대 이하	87	16.4
		30대	146	27.6
		40대	183	34.6
		50대 이상	113	21.4
	최종학력 (n=530)	고졸이하	26	4.9
		대졸(전문대 포함)	448	84.5
		대학원이상	56	10.6
	거주지역 (n=530)	제주시	414	78.1
		서귀포시	116	21.9
	직업 (n=529)	전문직	75	14.2
		관리직	31	5.9
		사무직	379	71.6
		기타	44	8.3
	종교 (n=530)	불교	151	28.5
		기독교	46	8.7
		천주교	71	13.4
		무교	262	49.4
	월평균 총 가구소득 (n=530)	200만원 미만	87	16.4
		2000-300만원 미만	101	19.1
		300-400만원 미만	115	21.7
		400-500만원 미만	104	19.6
		500-600만원 미만	64	12.1
		600만원 이상	59	11.1
기부 요인	정기적 기부 여부 (n=530)	예	405	76.4
		아니오	125	23.6
	월평균 기부액 (n=408)	1만원 미만	27	6.6
		1-3만원 미만	175	42.9
		3-5만원 미만	79	19.4
		5-7만원 미만	41	10.0
		7만원 이상	86	21.1

2. 문화성향,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기부지속성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03(SD=.73)으로 보통수준이며, 기부지속성 하위요인 중 기부지속의향(3.38점)과 기부추천의향(3.28점)은 기부횟수나 기부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성향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50(SD=.34)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화성향 하위요인 중 수직적 집단주의(3.6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평적 개인주의(3.36점)는 가장 낮았다.

〈표 4〉 조사대상자의 평가지표 기술통계량

구분		N	Min	Max	M	SD
문화성향		**530**	**1.72**	**4.84**	**3.50**	**.34**
	수직적 개인주의	530	2.00	4.88	3.42	.39
	수평적 개인주의	530	1.25	4.88	3.36	.44
	수직적 집단주의	530	1.88	4.88	3.61	.39
	수평적 집단주의	530	1.75	5.00	3.60	.45
기부지속성		**529**	**1.00**	**4.81**	**3.03**	**.73**
	기부횟수	530	1.00	5.00	2.91	.86
	기부금액	530	1.00	4.50	2.54	.66
	기부지속의향	529	1.00	5.00	3.38	.92
	기부추천의향	530	1.00	5.00	3.28	.90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문화성향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문화성향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른 문화성향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성별($t=2.401$, $p=.017$), 연령($F=10.215$, $p=.000$), 거주지($t=3.067$, $p=.002$), 종교($F=3.873$, $p=.009$), 월평균 총 가구소득($F=4.06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성향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수직적 개인주의에서는 직업을 제외한 모든 항목(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종교, 월평균 총 가구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수평적 개인주의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직적 집단주의에 대해서는 연령, 거주지, 종교, 월평균 총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수평적 집단주의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uncan test 실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저연

령층에 비해) 개인주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개인주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문화성향 차이

구분		문화성향									
		전체(①+②+③+④)		①수직적 개인주의		②수평적 개인주의		③수직적 집단주의		④수평적 집단주의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	3.54 (.34)	2.401*	3.46 (.40)	2.155*	3.42 (.44)	2.816**	3.64 (.68)	1.690	3.63 (.43)	1.076
	여	3.47 (.33)		3.39 (.38)		3.31 (.44)		3.58 (.39)		3.59 (.46)	
연령	20대 이하(a)	3.38 (.30)	10.215***	3.28 (.39)	8.155***	3.27 (.42)	8.180***	3.46 (.37)	14.022***	3.52 (.42)	1.565
	30대(b)	3.46 (.32)		3.39 (.37)		3.30 (.41)		3.54 (.37)		3.60 (.44)	
	40대(c)	3.51 (.29)		3.45 (.37)		3.35 (.40)		3.64 (.33)		3.62 (.41)	
	50대 이상(d)	3.63 (.40)		3.54 (.43)		3.53 (.52)		3.78 (.44)		3.65 (.51)	
	사후검증 (Duncan test)	a,b<c<d		a<b,c<d		a,b,c<d		a,b,<c<d		a,b,c<d	
학력	고졸이하	3.44 (.36)	2.363	3.41 (.40)	3.174*	3.27 (.57)	1.626	3.57 (.46)	1.160	3.50 (.41)	1.302
	대졸	3.49 (.33)		3.41 (.38)		3.36 (.44)		3.60 (.38)		3.61 (.43)	
	대학원 이상	3.59 (.39)		3.55 (.45)		3.45 (.40)		3.68 (.41)		3.67 (.56)	
	사후검증 (Duncan test)	a,b<c									
거주지	제주시	3.52 (.33)	3.067**	3.45 (.39)	3.544***	3.38 (.43)	2.039*	3.64 (.38)	2.934**	3.62 (.44)	1.550
	서귀포시	3.42 (.35)		3.31 (.38)		3.29 (.48)		3.52 (.40)		3.55 (.48)	
직업	전문직(a)	3.55 (.37)	1.241	3.48 (.40)	1.468	3.44 (.49)	1.553	3.67 (.39)	1.034	3.63 (.58)	.108
	관리직(b)	3.52 (.39)		3.42 (.46)		3.43 (.51)		3.62 (.40)		3.63 (.50)	
	사무직(c)	3.48 (.32)		3.40 (.38)		3.34 (.41)		3.59 (.38)		3.60 (.42)	
	기타(d)	3.54 (.36)		3.51 (.39)		3.39 (.54)		3.66 (.43)		3.61 (.41)	
	사후검증 (Duncan test)										
종교	불교(a)	3.54 (.34)	3.873**	3.45 (.41)	3.432*	3.40 (.42)	1.745	3.66 (.40)	4.797**	3.64 (.44)	1.764

	기독교(b)	3.52 (.34)		3.49 (.36)		3.33 (.48)		3.60 (.37)		3.67 (.52)	
	천주교(c)	3.58 (.38)		3.50 (.50)		3.44 (.49)		3.72 (.38)		3.66 (.50)	
	무교(d)	3.45 (.31)		3.37 (.35)		3.33 (.43)		3.55 (.37)		3.56 (.41)	
	사후검증 (Duncan test)	d,b,a<c		d,a<b,c				d,b,a<c			
월 평균 총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a)	3.37 (.30)	4.065**	3.29 (.37)	3.581**	3.26 (.45)	2.116	3.45 (.36)	4.600***	3.48 (.45)	1.817
	200-300만원 (b)	3.49 (.30)		3.43 (.36)		3.32 (.38)		3.60 (.38)		3.63 (.46)	
	300-400만원 (c)	3.51 (.31)		3.40 (.37)		3.37 (.42)		3.65 (.37)		3.63 (.42)	
	400-500만원 (d)	3.52 (.36)		3.46 (.40)		3.38 (.45)		3.63 (.38)		3.60 (.48)	
	500-600만원 (e)	3.57 (.37)		3.50 (.45)		3.46 (.49)		3.66 (.39)		3.68 (.43)	
	600만원이상 (f)	3.58 (.34)		3.52 (.40)		3.44 (.47)		3.71 (.40)		3.64 (.41)	
	사후검증 (Duncan test)	a<b,c,d,e,f		a,c<b,d,e,f		a,b,c,d<f,e		a<b,d,c,e,f		a,d,b,c<f,e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기부 특성에 따른 문화성향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 기부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월평균 기부액(F=3.817, p=.005)에 따른 문화성향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성향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는 기부 특성에 따른 문화성향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수평적 개인주의의 경우, 정기적 기부여부(t=2.575, p=.010)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수직적 집단주의의 경우, 월평균 기부액(F=6.764,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기부액의 유의미한 차이가 어느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uncan test 실시 결과, 월 7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가 월 7만원 미만 기부자에 비해 수평적 개인주의 및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부 특성에 따른 문화성향 차이

구분		문화성향									
		전체(①+②+③+④)		①수직적 개인주의		②수평적 개인주의		③수직적 집단주의		④수평적 집단주의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정기 기부 여부	예	3.52 (.33)	1.853	3.43 (.40)	.944	3.39 (.43)	2.575*	3.62 (.38)	.843	3.62 (.45)	1.470
	아니오	3.45 (.34)		3.39 (.37)		3.27 (.47)		3.59 (.40)		3.56 (.43)	
월평균 기부액	1만원미만 (a)	3.37 (.29)	3.817**	3.31 (.37)	2.255	3.26 (.36)	1.936	3.36 (.30)	6.764***	3.56 (.42)	1.717
	1-3만원 (b)	3.49 (.34)		3.41 (.43)		3.37 (.44)		3.59 (38)		3.60 (.44)	
	3-5만원 (c)	3.47 (.28)		3.39 (.34)		3.34 (.37)		3.58 (.34)		3.56 (.38)	
	5-7만원 (d)	3.63 (.28)		3.49 (.35)		3.52 (.38)		3.73 (.40)		3.77 (.43)	
	7만원이상 (e)	3.59 (.42)		3.52 (.44)		3.43 (.53)		3.74 (.43)		3.65 (.56)	
	사후검증 (Duncan test)	a,c,b<e<d		a,c,b<d,e		a,c,b,e<d		a<c,b,d<e		a,c,b,e<d	

*p<.05, **p<.01, ***p<.001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거주지, 직업에 따른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연령(F=15.184, p=.000), 학력(F=7.294, p=.001), 종교(F=7.630, p=.000), 월평균 총 가구소득(F=3.894, p=.002)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부지속성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기부금액은 연령, 학력, 직업, 종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기부횟수, 기부지속의향과 기부추천의향 변수는 기부지속성과 마찬가지로 연령, 학력, 종교, 월평균 가구 총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50대 이상의 기부지속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0대, 20대 이하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40대, 50대가 가

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며, 2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나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이상 학력자가 고졸이하 또는 대졸집단에 비해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이거나 천주교인 경우, 무교나 불교보다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차이

구분		기부지속성									
		전체(①+②+③+④)		①기부횟수		②기부금액		③기부지속의향		④기부추천의향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	3.04 (.72)	.256	2.94 (.82)	.828	2.56 (.67)	.414	3.40 (.90)	.412	3.26 (.88)	-.572
	여	3.02 (.75)		2.88 (.89)		2.53 (.65)		3.36 (.94)		3.31 (.93)	
연령	20대 이하(a)	2.73 (.75)	15.184***	2.54 (.88)	16.292***	2.37 (.65)	12.902***	3.00 (.97)	11.296***	3.02 (.90)	8.836***
	30대(b)	2.85 (.76)		2.72 (.87)		2.38 (.65)		3.21 (.97)		3.10 (.98)	
	40대(c)	3.14 (.65)		3.02 (.76)		2.59 (.59)		3.56 (.86)		3.40 (.80)	
	50대 이상(d)	3.30 (.69)		3.25 (.80)		2.82 (.68)		3.59 (.80)		3.54 (.88)	
	사후검증 (Duncan test)	a,b<c,d		a,b<c<d		a,b<c<d		a,b<c,d		a,b<c,d	
학력	고졸이하	2.76 (.90)	7.294**	2.66 (1.07)	6.894**	2.31 (.76)	3.115*	3.02 (1.07)	6.939**	3.07 (1.15)	5.650**
	대졸	3.00 (.72)		2.87 (.83)		2.54 (.65)		3.35 (.92)		3.25 (.89)	
	대학원이상	3.34 (.70)		3.28 (.86)		2.69 (.65)		3.75 (.81)		3.65 (.83)	
	사후검증 (Duncan test)	a,b<c		a,b<c		a,b<c		a,b<c		a,b<c	
거주지	제주시	3.03 (.72)	-.124	2.91 (.84)	.082	2.53 (.64)	-.774	3.38 (.92)	.162	3.28 (.89)	-.262
	서귀포시	3.03 (.77)		2.90 (.90)		2.59 (.74)		3.37 (.96)		3.30 (.97)	
직업	전문직(a)	3.01 (.80)	2.141	2.90 (.88)	2.271	2.48 (.74)	3.004*	3.35 (1.00)	1.079	3.29 (.98)	1.597
	관리직(b)	3.29 (.75)		3.19 (.92)		2.85 (.60)		3.66 (.97)		3.45 (.91)	
	사무직(c)	2.99 (.71)		2.86 (.83)		2.52 (.64)		3.35 (.90)		3.24 (.88)	
	기타(d)	3.17		3.10		2.65		3.40		3.52	

		(.77)		(.95)		(.68)		(.94)		(.92)	
	사후검증 (Duncan test)	c,a,d<b				a,c,d<b					
종교	불교(a)	3.01 (.75)	7.630***	2.92 (.82)	5.961**	2.53 (.63)	2.978*	3.33 (90)	6.619***	3.25 (.87)	7.618***
	기독교(b)	3.39 (.65)		3.23 (.81)		2.77 (.60)		3.85 (.81)		3.72 (.86)	
	천주교(c)	3.22 (.69)		3.13 (.88)		2.64 (.67)		3.58 (.82)		3.54 (.80)	
	무교(d)	2.92 (.75)		278 (.85)		2.49 (.68)		3.27 (.95)		3.16 (.92)	
	사후검증 (Duncan test)	d,a<c,b		d,a<c<b		d,a,c<b		d,a<c<b		d,a<c,b	
월평균 총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a)	2.81 (.72)	3.894**	2.61 (.87)	4.726***	2.46 (.61)	.883	3.06 (.99)	4.518***	3.08 (.91)	2.511*
	200-300만원 (b)	2.95 (.74)		2.82 (.84)		2.49 (.70)		3.27 (.89)		3.22 (.93)	
	300-400만원 (c)	3.03 (.72)		2.96 (.85)		2.55 (.65)		3.39 (.91)		3.24 (.88)	
	400-500만원 (d)	3.07 (.71)		2.91 (.80)		2.57 (.66)		3.43 (.91)		3.36 (.86)	
	500-600만원 (e)	3.28 (.70)		3.22 (.80)		2.65 (.70)		3.70 (.85)		3.57 (.84)	
	600만원이상 (f)	3.14 (.74)		3.06 (.91)		2.61 (.64)		3.56 (.89)		3.34 (.97)	
	사후검증 (Duncan test)	a,b,c<d,f<e		a,b<d,c,f<e				a,b<c,d,f<e		a,b,c,f,d<e	

*p<.05, **p<.01, ***p<.001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부 특성에 따라 기부지속성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 기부여부(t=13.345, p=.000), 월평균 기부액(F=18.006, p=.000)에 따른 기부지속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부지속성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변수 모두 정기기부 여부와 월평균 기부액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Duncan test 실시 결과, 7만 원 이상 기부자가 7만원 미만 기부자에 비해 기부지속성,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8〉 기부 특성에 따른 기부지속성 차이

구분		기부지속성									
		전체(①+②+③+④)		①기부횟수		②기부금액		③기부지속의향		④기부추천의향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정기기부여부	예	3.23 (.61)	13.345***	3.16 (.72)	14.288***	2.64 (.62)	5.931***	3.67 (.73)	16.203***	3.47 (.81)	8.884***
	아니오	2.37 (.70)		2.09 (.75)		2.25 (.68)		2.42 (.83)		2.70 (.93)	
월평균기부액	1만원미만 (a)	2.69 (.45)	18.006***	2.66 (.50)	15.835***	2.25 (.59)	7.848***	3.08 (.67)	15.608***	2.77 (.44)	11.186***
	1-3만원 (b)	3.10 (.54)		2.97 (.64)		2.56 (.58)		3.51 (.69)		3.36 (.71)	
	3-5만원 (c)	3.28 (.60)		3.21 (.74)		2.66 (.67)		3.75 (.61)		3.52 (.83)	
	5-7만원 (d)	3.35 (.68)		3.33 (.78)		2.69 (.60)		3.85 (.85)		3.55 (.99)	
	7만원이상 (e)	3.60 (.56)		3.57 (.66)		2.91 (.64)		4.07 (.66)		3.83 (.82)	
	사후검증 (Duncan test)	a<b,c<d<e		a<b,c<d<e		a<b,c,d<e		a<b,c<d<e		a<b,c,d<e	

*p<.05, **p<.01, ***p<.001

3.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대한 영향 분석

1) 문화성향이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이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282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기부횟수를 28.2%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F=11.860, p<.001)로 나타났다. 월평균 기부액과 수평적 개인주의 변수는 p<.001,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는 p<.01 수준에서 기부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평균 기부액(β= .330)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평적 개인주의(β= .265), 수직적 개인주의(β=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주의에 비해 개인주의성향일수록 기부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문화성향이 기부횟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기부횟수		
		B(S.E)	Beta(β)	t
상수		.017(.369)		.045
일반적 특성	성별	.026(.064)	.018	.403
	연령	.037(.036)	.049	1.010
	학력	.116(.161)	.031	.723
	거주지	.095(.077)	.055	1.239
	직업	.003(.006)	.018	.418
	종교	.017(.065)	.012	.268
	월평균가구소득	-.042(.022)	-.089	-.880
	정기기부여부	.076(.370)	.009	.205
	월평균 기부액	.185(.027)	.330	6.837***
문화성향	수직적개인주의	.292(.099)	.165	2.940**
	수평적개인주의	.430(.096)	.265	4.489***
	수직적집단주의	.055(.116)	.030	.473
	수평적집단주의	-.050(.090)	-.032	-.555
F값		11.860***		
R2		.282		
수정된 R2		.258		

*p<.05, **p<.01, ***p<.001

2) 문화성향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197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기부금액을 19.7%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F=7.397, p<.001)로 나타났다. 월평균 기부액 변수는 p<.001, 정기기부여부와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변수는 p<.01, 연령 변수는 p<.05 수준에서 기부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기부액(β= .219)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수평적 개인주의(β= .218), 수직적 개인주의(β= .201), 정기기부여부(β= .125), 연령(β=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일수록, 정기기부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금액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문화성향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기부금액		
		B(S.E)	Beta(β)	t
상수		.528(.343)		1.540
일반적 특성	성별	.047(.060)	.037	.792
	연령	.080(.034)	.122	2.381*
	학력	.224(.149)	.069	1.501
	거주지	.134(.071)	.088	1.881
	직업	.003(.006)	.023	.497
	종교	-.017(.060)	-.013	-.280
	월평균가구소득	-.031(.021)	-.076	-1.518
	정기기부여부	.923(.344)	.125	2.684**
	월평균 기부액	.108(.025)	.219	4.291***
문화성향	수직적개인주의	.313(.092)	.201	3.385**
	수평적개인주의	.311(.089)	.218	3.491**
	수직적집단주의	-.185(.108)	-.114	-1.715
	수평적집단주의	-.012(.084)	-.009	-.142
F값		7.397***		
R2		.197		
수정된 R2		.170		

*p<.05, **p<.01, ***p<.001

3)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215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기부금액을 21.5%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F=8.017, p<.001)로 나타났다. 월평균 기부액 변수는 p<.001,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는 p<.01 수준에서 기부지속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평균 기부액(β= .342), 수직적 개인주의(β=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기부지속의향		
		B(S.E)	Beta(β)	t
상수		.829(.393)		2.110*
일반적	성별	.032(.068)	.022	.472
	연령	-.041(.039)	-.053	-1.055

특성	학력	.128(.171)	.034	.747
	거주지	.146(.082)	.082	1.770
	직업	.002(.007)	.016	.350
	종교	-.073(.069)	-.050	-1.055
	월평균가구소득	-.019(.024)	-.039	-.786
	정기기부여부	.490(.394)	.057	1.244
	월평균 기부액	.195(.029)	.342	6.763***
문화 성향	수직적개인주의	.358(.106)	.199	3.381**
	수평적개인주의	.039(.102)	.023	.379
	수직적집단주의	.183(.124)	.098	1.483
	수평적집단주의	.078(.096)	.049	.816
F값		8.017***		
R2		.215		
수정된 R2		.189		

*p<.05, **p<.01, ***p<.001

4) 문화성향이 기부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이 기부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166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기부금액을 16.6%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F=6.010, p<.001)로 나타났다. 월평균 기부액 변수는 p<.001, 수평적 개인주의 변수는 p<.05 수준에서 기부추천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평균 기부액(β= .256), 수평적 개인주의(β=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문화성향이 기부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기부추천의향		
		B(S.E)	Beta(β)	t
상수		.712(.451)		1.578
일반적 특성	성별	.087(.079)	.053	1.105
	연령	-.002(.044)	-.002	-.041
	학력	-.012(.197)	-.003	-.059
	거주지	.123(.094)	.063	1.314
	직업	-.006(.008)	-.033	-.073
	종교	.036(.079)	.022	.453
	월평균가구소득	-.037(.027)	-.069	-1.349
	정기기부여부	.723(.453)	.076	1.598
	월평균 기부액	.163(.033)	.256	4.922***

문화성향	수직적개인주의	.216(.122)	.107	1.776
	수평적개인주의	.261(.117)	.142	2.225*
	수직적집단주의	.136(.142)	.065	.956
	수평적집단주의	.058(.110)	.033	.526
F값		6.010***		
R2		.166		
수정된 R2		.138		

*p<.05, **p<.01, ***p<.001

5)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275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기부금액을 27.5%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F=11.427, p<.001)로 나타났다. 월평균 기부액 변수는 p<.001,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와 수평적 개인주의 변수는 p<.01 수준에서 기부지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평균 기부액(β= .341)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직적 개인주의(β= .193), 수평적 개인주의(β=.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기부액이 많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일수록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3〉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기부지속성		
		B(S.E)	Beta(β)	t
상수		.530(.317)		1.673
일반적 특성	성별	.049(.055)	.010	.897
	연령	.017(.031)	.027	.549
	학력	.112(.138)	.036	.813
	거주지	.120(.066)	.081	1.819
	직업	.001(.006)	.005	.122
	종교	-.007(.056)	-.006	-.133
	월평균가구소득	-.032(.019)	-.080	-1.676
	정기기부여부	.554(.317)	.077	1.745
	월평균 기부액	.163(.023)	.341	7.027***
문화성향	수직적개인주의	.292(.085)	.193	3.421**
	수평적개인주의	.262(.082)	.190	3.190**
	수직적집단주의	.048(.100)	.030	.478

	수평적집단주의	.017(.077)	.013	.221
F값		11.427***		
R2		.275		
수정된 R2		.251		

*p<.05, **p<.01, ***p<.001

Ⅴ. 결론

1. 조사결과 요약

본 논문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문화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기부경험자(n=53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응답자의 문화성향, 기부지속성의 인식수준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문화성향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 월평균 총 가구소득, 월평균 기부액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는 기부 특성에 따른 문화성향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수평적 개인주의의 경우, 정기적 기부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수직적 집단주의의 경우, 월평균 기부액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기부지속성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종교, 월평균 총 가구소득, 정기적 기부여부, 월평균 기부액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변수 모두 정기기부여부와 월평균 기부액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7만 원 이상 기부자가 7만원 미만 기부자에 비해 기부지속성, 기부횟수, 기부금액, 기부지속의향, 기부추천의향 모두 높게 나타났다.

셋째,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월평균 기부액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직적 개

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기부액이 많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부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지방정부 차원의 기부확대방안

첫째, 지역사회의 문화성향을 기부모금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사회복지관이 존재하고 활동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는 장으로써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기관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제주지역은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각종 사회단체, 소모임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한 문화성향을 지닌 지역사회 조직들과의 제휴를 통해 모금 및 기부자 개발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단체를 기부자로 끌어들이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이들이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수긍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 잠재기부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파급되어 질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제주형 기부문화 구축을 위해 제주인의 문화성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자원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개인기부의 확대는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빈곤층을 위한 지원, 재난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지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발생시 정부의 도움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런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기부가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정부기관의 도움 없이도 지역 자원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국가나 시장이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일일하기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빈틈을 채워주는 것이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이다.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은 지역사회 내에 활용 가능한 복지재원의 총량을 늘리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존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및 공공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구성, 서비스시스템 확립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민관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기부 전문가를 발굴하고, 기관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자 개발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는 것은 물론 이 업무를 전담할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유능한 내부인력을 개발하여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자문 받아야 하며, 직접 모금 및 후원개발활동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 주민중에서 모집하여 모금 및 후원개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강철희·주명관, 「기부대상영역에의 기부참여행동과 기부정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6(2), 2007.

김연수·이광석, 「모금활동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김영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자의 기부지속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정식, 「자기-타인 평가에서 자기해석과 종결욕구의 영향」, 『산업 및 조직』, 24(2), 한국심리학회지, 2011.

김정훈,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돈 태도 유형이 기부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2011.

김해숙,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류방,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기부동기가 기부만족과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신뢰,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박경수·김대원, 「초·중등 교사의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 『시민사회와 NGO』, 10(2), 2012.

박태규·박수범·정영석,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비영리연구』, Vol. No. 1, 2003.

박태규·윤병호·정진욱,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통권 제58호), 2008.

변충규, 「개인 기부자의 기부동기 및 의례화가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3(1), 2014.

유용식·손호중,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8(2), 2009.

장수지·김수영·Erika Kobayashi, 「연령집단 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Vol, 28 No. 2, 2012.

정혜욱,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성향이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감수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2(3), 2012.

정호영, 「사회복지시설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조선주·박태규, 「정부보조금의 민간(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회복지관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제12집, 2007.

한혜란, 「한국의 민간 기부금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기부의 지속성과 동료효과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황창순·강철희,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Vo1.1 No.2, 2002.

<국외>

Cahoon, N, History of the Western mind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1996.

Hofe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1980.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1997.

Lwin, May O., J. D. Williams, and L. L. Lan, Social Marketing Initiatives : National Kidney Foundations Organ Donation Programs in Singapore, *Journal of Policy and Marketing*, 21(1), 2002.

Markus, H. R., & Kitayama, S.,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1991.

Moliner, M., Loyalty perceived value and relationship quality in healthcare services,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0(1), 2009.

Payton, R. L., Philanthropy as a right, www.paytonpapers.org, 1983.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D. P., &Gelfand, M. J,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1995.

Singh, Jagdip, Determinants of Consumers Decisions to Seek Third Party Redress: An Empirical Study of Dissatisfied Pati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Winter), 1989.

Triandis, H. C.,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Cultural Inclination on Donation Continuity-With a Central Focus on Individual Donors in Jeju

Jin gwan hun*·Seo young 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continuity of individual donations by utilizing the cultural inclination that can represent local society's unique lifestyle and culture.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fact that individual donations can be influenced by not only individual factors such as donation intention and donation motives, but also by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cluding cultural inclina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general residents of Jeju, who are at least 18 years of age and who have donated before. I distributed 550 surve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530 data, except for 20 unanswered and incomplete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cultural inclination factors, vertical individualism and horizontal individualism have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s on donation continuity. This fact does not fit preceding research that the stronger the collectivist tendency, the higher the chance of altruistic expression. And, if donations are altruistic sharing to social value, collectivist

* Jeju Technopark Chief researcher.

** Secretary general, Community Chest of Jeju

tendency highly influences the continuity of don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result is caused by Jeju's own unique cultural inclination, but this may be the point that needs further investig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nother factor that can explain cultural inclination and donation continuity.

This research verified that the higher the vertical individualism and horizontal individualism, the higher the donation continu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cultural inclination is the influencing factor on donation continuity. Especially, as it is confirmed that cultural inclination is a useful variable in explaining donation continuity, individual cultural inclin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courage donation continuity.

key words : donation continuity, cultural inclination, vertical individualism, horizontal individualism, individual donations.

〈부록〉

〈부록 1〉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유형별 모금액 현황

구분	개인모금액(원)/ 비율(%)	법인모금액(원)/ 비율(%)	기타모금액(원)/ 비율(%)	총모금액(원)/ 비율(%)
전체	96,355,817,241	408,749,861,959	78,183,337,294	583,289,016,494
	16.5	70.1	13.4	100
중앙	11,964,473,238	278,148,381,880	14,773,980,914	304,886,836,032
	3.9	91.2	4.8	100
서울	21,276,976,470	26,511,360,198	17,245,018,062	65,033,354,730
	32.7	40.8	26.5	100
부산	4,423,002,061	9,841,797,617	4,004,740,788	18,269,540,466
	24.2	53.9	21.9	100
대구	5,066,429,736	6,430,998,919	2,333,618,703	13,831,047,358
	36.6	46.5	16.9	100
인천	3,931,537,689	9,023,119,449	1,752,769,503	14,707,426,641
	26.7	61.4	11.9	100
광주	2,686,680,338	2,938,075,879	908,870,258	6,533,626,475
	41.1	45.0	13.9	100
대전	3,809,395,388	4,212,891,261	1,174,978,645	9,197,265,294
	41.4	45.8	12.8	100
울산	2,211,703,720	6,722,279,958	724,895,966	9,658,879,644
	22.9	69.6	7.5	100
경기	11,309,238,100	20,423,884,330	11,020,273,498	42,753,395,928
	26.5	47.8	25.8	100
강원	3,394,410,965	3,397,765,586	3,347,408,820	10,139,585,371
	33.5	33.5	33.0	100
충북	3,208,852,507	4,009,182,826	1,675,463,486	8,893,498,819
	36.1	45.1	18.8	100
충남	3,203,911,424	9,422,918,742	4,846,190,742	17,473,020,908
	18.3	53.9	27.7	100
전북	3,410,404,904	3,548,190,909	2,550,263,498	9,508,859,311
	35.9	37.3	26.8	100
전남	3,470,345,248	6,470,852,036	3,296,900,848	13,238,098,132
	26.2	48.9	24.9	100
경북	4,866,653,929	6,329,976,101	5,285,198,077	16,481,828,107
	29.5	38.4	32.1	100
경남	5,432,185,670	7,032,078,032	2,178,926,152	14,643,189,854
	37.1	48.0	14.9	100

제주	2,441,223,514	3,464,592,166	849,972,869	6,755,788,549
	36.1	51.3	12.6	100
세종	248,392,340	821,516,070	213,866,465	1,283,774,875
	19.3	64.0	16.7	100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록 2〉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당 기부실적

연번	구분	인구수(명)	모금목표액(원)	모금실적(원)	달성율(%)	1인당 기부실적	
						기부액(원)	순위
1	전국	51,342,881	500,000,000,000	583,289,016,494	116.7	11,361	-
2	중앙	-	241,000,000,000	304,886,836,032	126.5	-	-
3	서울	10,104,515	64,210,000,000	65,033,354,730	101.3	6,436	7위
4	부산	3,517,898	14,510,000,000	18,269,540,466	125.9	5,193	12위
5	대구	2,492,658	12,470,000,000	13,831,047,358	110.9	5,549	11위
6	인천	2,904,876	11,570,000,000	14,707,426,641	127.1	5,063	14위
7	광주	1,476,891	6,460,000,000	6,533,626,475	101.1	4,424	15위
8	대전	1,531,287	8,570,000,000	9,197,265,294	107.3	6,006	9위
9	울산	1,167,232	10,090,000,000	9,658,879,644	95.7	8,275	3위
10	경기	12,366,711	36,720,000,000	42,753,395,928	116.4	3,457	17위
11	강원	1,543,640	9,850,000,000	10,139,585,371	102.9	6,569	6위
12	충북	1,578,531	8,700,000,000	8,893,498,819	102.2	5,634	10위
13	충남	2,063,050	17,150,000,000	17,473,020,908	101.9	8,470	2위
14	전북	1,871,018	11,020,000,000	9,508,859,311	86.3	5,082	13위
15	전남	1,904,220	10,640,000,000	13,238,098,132	124.4	6,952	5위
16	경북	2,699,275	16,170,000,000	16,481,828,107	101.9	6,106	8위
17	경남	3,351,038	13,930,000,000	14,643,189,854	105.1	4,370	16위
18	제주	608,325	5,970,000,000	6,755,788,549	113.2	11,106	1위
19	세종	161,716	970,000,000	1,283,774,875	132.3	7,938	4위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신 : 진관훈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F 제주테크노파크
(E-mail : adel@jejutp.or.kr)

논문투고일 2016. 04. 30.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